『종교와 문화』 제44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3. pp. 69-110

동학가사 『만세선화』 연구

박 병 훈*

Ⅰ. 머리말
Ⅱ. 『만세선화』와 저작 주체
1. 『만세선화』의 저작 시기 추정
2. 『만세선화』와 정수승
Ⅲ. 『만세선화』 체제와 기존 해제의 문제점
Ⅳ. 『만세선화』와 가사 전통의 계승
1. 도덕가류와의 관련성
2. 『용담유사』와의 관련성
Ⅴ. 『만세선화』의 특징과 의의
1. 선도(仙道)의 강조
2. 청림(靑林)에 대한 인식
3. 동학과 신존왕주의
Ⅵ. 맺음말

Ⅰ. 머리말

필자는 2016년 5월, 2박 3일간 수운교에 방문하여[1] 수운교의 자료에 대해 이모저모 조사하던 중 『만세선화』란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 상하권 합본의, 41편의 가사(歌辭)가 실린 등사본으로, 판권사항을 살피니 수운교본부에서 1975년[2]에 인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1) 서울대학교의 최종성 선생님 및 박인규 선생님과 함께 방문하였다.

2) “수운강생 154년 1월 15일 인쇄, 4월 15일 발행”으로 되어 있는데, 수운교에서는 수운이

쇄 겸 발행된 책이다. '수운교본부인(水雲敎本部印)'이 찍혀서 보관되고 있는 가사집(歌辭集)이다. 수운교 내에서는 정덕호의 강서(降書)[3]로 이루어진 책으로 간략히 소개[4]되어 있을 뿐이며 교내에서도 더이상의 설명은 듣기 어려웠다. 본고는 이 베일에 싸인 『만세선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다.

우선 수운교(水雲敎)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수운교는 동학 교단으로, 불천심(佛天心) 일원의 무극대도(無極大道)라 칭한다. 동학의 창시자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가 1864년 대구 관덕정의 수난에서 벗어나 금강산에 은둔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후 '수운' 대신 '출룡자(出龍子)'[5]라는 당호를 사용하게 된다. 출룡자는 금강산 비로봉 도솔암 기도를 마친 뒤 여러 명산 대찰을 두루 다니며 55년간의 은도(隱道) 시대를 보내게 된다. 1912년 청양 적누리 칠룡산하 안골에 도성암(道成庵)을 짓고 기도하며 지내다가, 1920년 9월 15일 박성호 등을 비롯한 5인이 출룡자를 모시고 세상에 다시 나서게 된다. 이를 수운교에서는 재위출세(再爲出世)라 칭한다. 1921년 충남 예산에 출운당(出雲堂)을 지어 활동하였고, 이후 1922, 1923년 양년간 포덕에 힘썼다. 1923년 서울에서 개교(開敎)하였으며, 1929년 대전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운교 가사의 연구로는 이찬구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그는 가사를 포함한 수운교 경전의 성립과정을 개관하여 수많은 경전들의 상호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었고, 직접 수운교 내에서 전해지고 있는 비결가사자료들을 상세한 주해를 통해 소개한 바 있다.[6] 그러나 그 이외에 학계에서 수운교 가사를 주목한 바 없다.

1824년 경주 가정리에서가 아닌, 1822년 금강산에서 태어났다고 보고 있기에 수운강생 1년은 1822년이 된다. 수운교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수운천사께서 탄강하신 서기 1822년(임오)을 水雲降生(수운강생) 원년으로 한다."

3) 강서(降書)는 강필(降筆)의 의미이다.

4) 수운교 교리연구원, 『수운교진리』 (대전: 수운교, 1999), 230.

5) 『용운가』 등에서 수운이 자신을 소개할 때 "출룡자 성은 이최 두자성으로 쓸 것이요, 또 이름은 부석 석룡이요, 관명은 상룡이요, 자는 제우요, 별호는 수운선사공이요, 당호는 출룡 담룡 남해월암 선생이라 칭하나이다.(『용운가』1권)" 등으로 나오는데, '출룡자'는 '수운'이라는 호를 감추기 위해 대신 쓴 당호로 이해된다(수운교 교리연구원, 『수운교진리』, 169 참조).

6) 이찬구, 「수운교 경전성립과정 고찰」, 『신종교연구』 17 (2007): 53-96; 이찬구 주해, 『채지가 9편』 (서울: 나무의 꿈, 2010).

상주에 소재한 동학교(東學敎)가 가사 100편을 자랑하며 국가지정 기록물 등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7] 수운교의 가사자료 역시 그에 못지않은 자료를 갖고 있는 만큼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8]

수운교에서는『용담유사』를 전팔편이라 하고, 이에 대응되는『통훈가사』[9]를 후팔편으로 부르고 있다. 이 가사는 출룡자가 지은 것은 아니고 제자 조병휘가 강서(降書)를 통해 얻은 것으로 출룡자가 말하는 내용과 권위면에서 다르지 않음을 수운교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곧 강필(降筆)의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10]『용운가(龍雲歌)』(1929-1932)는 출룡자가 자신의 일대기를 가사체로 기록한 자료[11]인데, 교단 내에서 출판[12]된 이외에는 학계에 영인 등으로 소개된 바는 없다. 한편으로 박종각(朴鍾珏)이 강필로 받은「무궁화」라는 가사가 존재한다. 이「무궁화」는 1929년 봄 수운교 도솔천궁에서 교인 방호 박종각(朴鍾珏)이 3·7 기도중 강서로 받은 것이다.[13]『채지가』,『임하유서』와 같이 비결가사의 성격을 띤다. 이렇듯 수운교는 강필의 전통을 통해 가사들을 창작하였고, 한편으로『용운가』와 같은 초장편가사가 존재한다.

『만세선화』는 수운교 교단 내에서 기억 속에서 잊혀진 가사 자료이며, 학계에도

---

7) 1995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11호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 국가지정 기록물 제9호로 지정되었다.

8) 가사자료 이외에도『삼불전배례주』,『소례참』,『평례참』,『중례참』,『대례참』(상·중·하),『금강대례참』등의 예참문이나 수운교본부 내의 용호당에서 보관된 채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 역시 앞으로 학계의 관심이 필요한 자료들이라는 점을 첨언한다.

9)「출세가(出世歌)」,「도덕가(道德歌 ※후 도덕가)」,「처세가(處世歌)」,「지로가(指路歌)」,「권학가(勸學歌 ※후 권학가)」,「전두유사(前頭諭詞; 前頭遺詞)」,「탄세유사(嘆世遺詞)」,「공덕가(功德歌)」8편으로 이뤄져 있다.

10) 동학 내에서의 강필 전통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박병훈,「동학 강필 연구」,『종교연구』80 (2020): 235-252.

11) 수운교에서 1971년 펴낸『용운가』서문에서 "이 책을 배독하시는 여러분은 불경과 같이 소중히 여겨 경건한 태도로 삼대원이 하루속히 성취할 것을 기원하며 이 용운가가 자손 만대에 가보가 되어 세세생생 전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하여 책의 지위를 경전적 지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원자료를 교인들이 등서하여 수운강생 150년(1971) 4월 15일부터 151년(1972) 3월 15일까지 수운교본부에서 10책으로 발행하였다.

13) 이찬구 주해,『채지가 9편』, 8.

소개된 바가 없다. 본글에서는 기존 『용담유사』와 동학교 가사 100편에 주로 한정되었던 동학가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하여 본 자료를 소개하고, 그 동학가사로서의 의미를 살피도록 한다. 이 가운데 『만세선화』[14] 저작 주체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한다. 곧 『만세선화』의 내용과 발행시기를 세밀히 검토해 보았을 때, 비록 수운교에서 발간된 가사이지만, 그 본래의 출처는 다를 수 있겠다는 판단이다.

Ⅱ. 『만세선화』와 저작 주체

『만세선화』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수운교본부에서 1975년에 인쇄 겸 발행한 가사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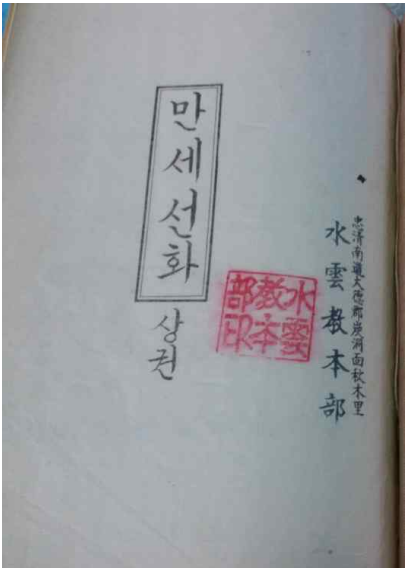

그림 1 <『만세선화』 수운교본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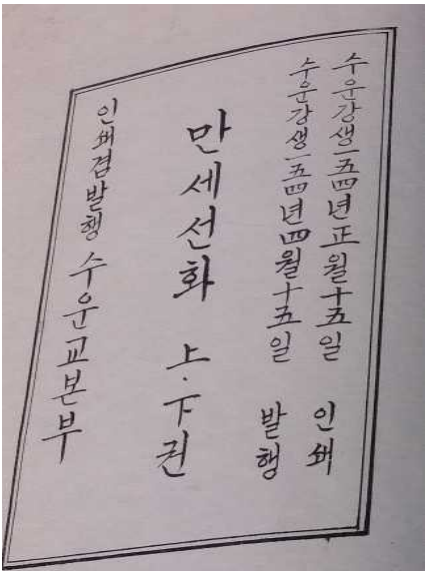

그림 2 <『만세선화』 판권지>

다행히 전라남도 담양의 한국가사문학관에 수운교 발행 『만세선화』의 상권 전

14) 가사집으로서뿐 아니라 가사집 소재의 가사들을 통칭할 때도 『만세선화』라 표기하겠다.

체에 해당하는 19편의 가사들이『萬世善和』표제의 필사본으로 존재하여 비교가 가능하다.15) 수운교 발행본이 국한문혼용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가사문학관 필사본은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순한글로 되어 있다.

또한 강전섭 소장 필사본『진리보감(眞理寶鑑)』에서『만세선화』의 상권 중 10편에 해당하는「상산별곡」,「경탄가」,「광고장」,「포덕가」,「숫자가」,「자도가」,「용문산가」,「내칙편」,「천지도통가」,「개명진심가」가사가 발견된다. 해당 자료는 기존 임기중의『역대가사문학전집』(전51권, 아세아출판사) 등을 기반으로 한 KRPIA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DB에서 제공하는 것이다.16) 한편으로 이 DB에서「행행곡」역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총 11편의『만세선화』내 가사가 기왕의 학계에 소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사 역시 대부분 순한글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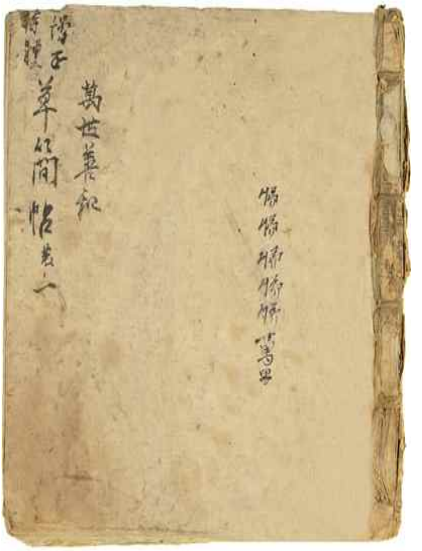

그림 3 <한국가사문학관 소장『만세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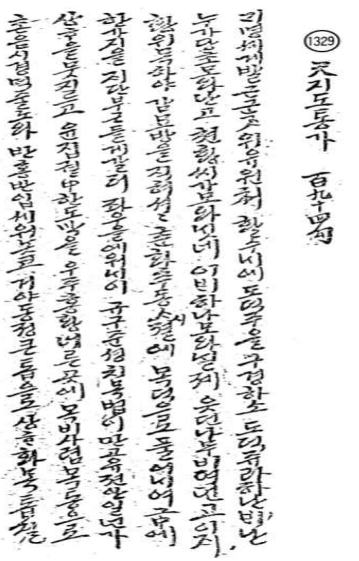

그림 4 <강전섭 소장 필사본『眞理寶鑑』>

15) 한국가사문학 DB(http://www.gas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16)「자도가」,「천지도통가」는 그 내용을 볼 때「지도가」,「천지도덕가」와 같은 가사이다. 제목 표기에 있어 전사상의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만세선화』 하권도 필사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국가사문학관을 비롯해서 소장처는 찾아볼 수 없기에 하권의 내용은 수운교 발행본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가사문학관본 『萬世善和』, 강전섭 소장 『眞理寶鑑』 필사본의 존재는 당대에 해당 가사가 비교적 인기를 끌며 유통되었음을 보여준다.

1. 『만세선화』의 저작 시기 추정

수운교의 『만세선화』는 1975년 발행되었지만, 각각의 가사에 작성한 연도의 간지(干支)가 경술(庚戌), 신해(辛亥), 임자(壬子), 계축(癸丑), 갑인(甲寅)으로 나타난다. 가사문학관 소장 『萬世善和』 역시 간지에 대한 부분이 일치한다. 이에 경술년부터 갑인년까지의 작성시기는 발행시기(1975)에 가까운 1970년부터 1974년까지인가, 아니면 1910년부터 1914년까지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기존의 가사들을 모아 출간하는 경우라면 발행시기와 작성시기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필사본을 볼 때 아래아(·) 및 ㅅ계 합용병서[17]로 쓰여 있어서 20세기 초반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18] 이를테면 "꼿귀경 하랴하고 힝장을 차려닐제(「상산별곡」)", "시호시호 잇쩌의은 귀경박계 할게음닉(「행행곡」)," "셩쥬짜의 우거히서 보국충졀 진명던니(「사향곡」)" 등등 이러한 표기법은 필사본 내에서 일관된다. 자세한 논의는 피하겠지만 적어도 1970년대에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표기법이다.

수운교의 시작은 1923년 서울에서의 개교부터이다. 혹은 그 이전 1920년 청양 도성암에서 9년만에 나와 본격적 활동을 펼쳤던 출룡자의 재위출세(再爲出世) 때로 앞당겨 본다 해도, 첫제자 박성호를 맞이한 때는 1920년이었다. 1910년부터

---

17) 각자병서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 명문화된다.

18) 20세기 초 국어 모습을 살피기 위한 자료 중 하나로 『기도히가(開道解歌)』를 들 수 있다. 이는 『용담유사』를 개간(改刊)하여 청림교에서 1917년 발간한 문헌이다. 해당 자료는 아래아(·) 및 ㅅ계 합용병서 등이 잘 나타난다. 더 상세한 국어학적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안미애, 「동학 가사집 『기도히가(開道解歌)』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표기와 음운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36 (2015): 45-76.

1914년 사이에 지어진 가사라면 수운교의 가사라 부르기 어렵다.

내용 상으로 볼 때에도 20세기 전반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경탄가(驚歎歌)」에서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7), 충정공(忠正公) 민영환(閔泳煥, 1861～1905), 안중근(安重根, 1879～1910)을 언급하는 다음의 구절이 등장한다.

萬古忠臣 崔勉菴은 第一功名 새겨놓고
當世忠臣 閔忠節은 第二等에 새겨놓고
萬古烈士 安重根은 烈士中에 第一이라
第一功名 새겨내야 名傳千秋 하여주세 (<驚歎歌>)

최익현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906년 항일의병운동을 일으켰으나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된 뒤 순국하였고, 민영환은 을사늑약 체결 뒤 자결하였으며, 안중근은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뒤 체포, 중국 뤼순형무소에서 사형되었다. 이들은 일제의 본격적인 식민통치가 시작되기 이전, 격렬하게 일본에 맞선 순국선열들이다.「경탄가」는 경술년(庚戌年) 음력 6월 작성되었는데, 이는 경술국치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당시의 항일 감정을 최익현, 민영환, 안중근의 세 인물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다음의 가사에서는 당시 조선이 일본의 압제에 들어간 상황에서 천하각국의 신구학을 배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朝鮮 文明之治 어찌그리 못밝혀서
압제속에 들었는고 애달하다 우리同胞 …
天下各國 新舊學을 아니보고 어찌알꼬
自尊之心 다버리고 易地思之 하여보소
萬里他國 오는사람 不待不待 蔑視마오
天下明賢 오는것을 接待할줄 모르다가
이地境이 되었으니 (「龍門山處士歌」)

일본의 압제에 들어선 조국에 대해 우선 안타까움을 표출하며, 당시 왕래를 시

작한 외국인들을 잘 접대하지 못하여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자존심을 일단 버리고 역지사지할 것을 말한다.

수운교에서는 『만세선화』를 직접 본부에서 인쇄 및 발행하였지만, 위에서 보았듯 필사본의 국어학적 특성 및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내용을 볼 때 『만세선화』는 수운교 성립(1923년) 이전 시기인 1910년부터 1914년까지 작성된 가사이기에, 수운교에서 저작된 가사라 보기는 어렵다.

2. 『만세선화』와 정수승

만일 1910년부터 지어졌다면, 그리하여 이들 가사가 수운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저작 주체는 어디일까? 가사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추적을 통해 가사의 저작자 및 그 종교적 배경에 다다를 수 있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만세선화』는 정수승(鄭壽承)이 저작한 것으로,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동학교단 운림교(雲林敎)와 깊은 관련을 지닌 가사이다.

가사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교단 및 교주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운림(雲林)'이란 용어가 눈에 띈다.

> 仙道가 創建되야 仙境法을 施行하면
> 天上에 雲林仙官 河馬洛龜 몰아내어
> 則天之道 밝은法을 仙道로 重修하야
> 五車書 八大家를 이世上에 실어오니
> 이런運數 求景하소 仙官行次 오게되면
> 萬古없는 春秋筆法 今無古無 禮儀凡節
> 이世上에 다시밝혀 사람마다 君子되니
> 地上仙境 分明하다 (「布德歌」)

> 矢口矢口 좋을矢口 雲林道學 좋을矢口
> 矢口二字 뉘가알가 林下遺書 지은兩班
> 어찌그리 矢口런고 四時不変 一青林이

남무남무 靑林이요 枝枝葉葉 정절일세 (「天地道德歌」Ⓑ)

우리同胞 學生들아 너무걱정 마르시오
왔네왔네 내가왔네 雲林處士 내가왔네
望之如雲 하던次에 就之如日 하오리라
無爲化氣 운수런가 循環之理 回復인가 (「出林歌」)

운림은 운림선관, 운림처사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의 도학(道學)은 운림도학으로 지칭된다. 「포덕가」에서 선도가 창건되면 천상에 있는 운림선관이 하늘을 본받는 법을 중수(重修)하여, 다섯 수레에 달하는 팔대가(八大家)[19]의 책을 이 세상에 실어 온다. 이렇듯 운림선관이 행차하면 춘추필법과 예의범절을 밝혀 세상사람을 군자가 되게 하니 지상선경이 찾아오게 된다 한다.

「천지도덕가」Ⓑ에서는 운림도학에 대해 '좋을시구'라 하고 있다. 한편으로 '좋을矢口'의 '矢口'는 안다[知]는 의미기도 하다.[20] 상주에 자리잡은 동학교에서 펴낸『용담유사』권2에 따르면 「임하유서」는 「지지가(知止歌)」, 「경탄가(警歎歌)」, 「도성가(道成歌)」, 「육십화갑자가(六十花甲子歌)」, 「연월가(年月歌)」 5편을 묶은 이름이며, 혹은 「지지가」 한 편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임하유서」를 「지지가」에 한정시켜 내용을 보면, 「지지가」에서 "矢口矢口 鳥乙矢口 矢口二字 뉘알손야"란 표현이 등장하는데,[21] 청림, 하늘님, 궁궁 등을 알고 믿으라는 당부와 연결된다. 운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알고 믿으라는 의미로 「임하유서」를 언급했을 것이다.

「출림가」에서는 운림처사가 곧 자신임을 밝히고 있고, 시운에 따라 자신이 나오게 되었음을 말한다.

위의 점들을 볼 때, '운림'은 곧 저자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적해본 바 운림교(雲林敎)와 정수승(鄭壽承)을 마침내 발견할

19) 당송팔대가, 곧 당의 한유(韓愈), 유종원(柳宗元)과 송의 구양수(歐陽修),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 증공(曾鞏), 왕안석(王安石)을 말한다.

20) '知'자를 파자하면 '矢口'가 된다. 정감록류 비결서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21)『龍潭遺辭』권2, 「林下遺書·知止歌」.

수 있었다.

정수승은 1895년, 19살 되던 해에 동학당에 가담하였다. 동학당 해산 이후에는 청림교 교인[22] 혹은 수운교 박성호의 문하인이 되었다고 한다.[23] 『만세선화』 내용에 '청림'이 중요하게 언급되며, 수운교에서 1975년 『만세선화』를 발간한 사실을 볼 때, 정수승은 청림교와 수운교 모두를 거쳐 갔을 것으로 보인다.

운림교는 이전 정수승이 1928년에 창설한 선도교(善道敎)에서 1930년 명칭을 변경한 것[24]으로, 충북(忠北) 괴산군(槐山郡) 장연면(長延面) 추응리(楸應里)를 본거지로 한다. 동학의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포덕천하(布德天下)의 삼대원을 성공하면 계천입극(啓天立極)한다는 것을 포교[25]하였다. 당시 일본은 1935년 신토(神道)계의 신종교 오오모토교(大本敎)를 탄압한 바 있었는데, 이에 상응하여 조선 내에서 단속한 결과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운림교가 걸려들게 되었다. 운림교는 사교(邪敎)로 낙인이 찍혀 1936년 1월 23일, 충북 괴산, 충남 논산, 평양 등 각지에서 교주 정수승을 비롯하여 이봉식(李奉植) 외 4명의 간부가 검거되었다. 체포 당시 정수승의 나이는 61세이다. 이후 1936년 8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청주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우선 정수승과 『만세선화』 관련된 기사 내용을 살펴 보자.

> 소화五년에 충북 괴산(槐山)으로 가서 운림교를 창립한 후 자긔가 교주가 되어 동학당 비슷한 『슬로간』으로 만세선화(萬世仙話)와 합덕가(合德歌) 등의 불온한 출판물을 발행하야 평양(平壤)에 잇는 동지와 연락하야 가며 암중비략을 하며 신도를 모집하기에 분망하엿는데…[26]

---

22) 「火田民을 울리든 雲林敎의 正體!」, 『조선일보』 1936.11.7. 3면.

23) 「怪敎雲林敎 敎主以下拘禁取調 불온한 표어로써 신도모집」, 『매일신보』 1936.4.10. 3면. 기사 본문에는 "수운교(水雲敎) 교주 리성호(李性昊)의 문하인이 되엇다"라 표현했으나, 수운교 교주는 출룡자이고, 그의 제자는 이성호가 아닌 박성호(朴性昊)로 법호는 범호(犯虎)이다. 박성호는 이후 대동교(大同敎)라는 수운교별파를 만들게 된다.

24) 「天下를 統一하야 王位에 올른다고 愚氓을 속혀 金品騙取한 痴漢 怪敎雲林敎主의 正體」, 『매일신보』 1936.4.16. 7면.

25) 「火田民을 울리든 雲林敎의 正體!」, 『조선일보』 1936.11.7. 3면. '啓天立極'은 '繼天立極'의 혼동으로 보인다.

> 이 교주 정수승(鄭壽承)은 원래 현천도교의 전신인 동학(現天道敎前身東學)을 미더오다가 무슨불만이잇섯든지 그후동학을 배반하고 소화三년(1928)에 그의 본적지인 괴산에서 선도교(善道敎)라는 것을 창설하고 만세선화(萬世仙話)니 합덕가(合德歌)니 하는 경전을 만드러 포교에 전심하든바 소화五년(1930)에 와서 운림교(雲林敎)로 명칭을 변경하야『운림교를 밋는 자는 천지신명이 구원하야 세상의 온갖재난(災難)을 면할수 잇다』하야 우매한 사람을 속여 온 것이라는데…[27]

이 기사를 통해 비로소 정수승이『만세선화』의 저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운교발행본에는 한글로만 '만세선화'라 되어 있어 추정하기 어려웠던 제목의 한자표기가 '萬世仙話'임도 알게 되었다.[28] 한편『만세선화』는「합덕가(合德歌)」[29]와 더불어 경전으로 여겨졌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겠다. 정수승은 과연『만세선화』를 어떻게 저작하게 된 것인가?

> 교주의 말에 의하면 자긔는 원래 무식한 자이엇스나 신의 령감을 바더 글을 알게 되엇다 하며 교주자신이 저서한 서적이 륙권이나 되는데 이는 모다 신의 지시로 된 것이라 하며 자긔가『왕』이 된다 함도 이러한 신의 지시가 잇섯다고 하야 교묘한 수단으로 신도를 획득하엿다. 저서의 필적이라든지 문구를 본다면 한학을 상당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해득할 수가 업다고 한다. 그 의례(儀禮)는 보천교에 방불하고 의복은 옛날 조선의 고관들이 입는 옷을 모방하엿스며 교주가 사용하는 물건은 즉 다시 말하면 밥상이라든가 칼(小刀)가튼것은 전부 룡(龍)을 색엿고 맛치 품질은 납분 것으로 만들엇스나『왕』이 하시는 그대로를 모방하엿다. 이라하야 신도들은 장차 자긔네들에게 요구한 지위가 돌아오리라고 몽상하여 왓고 이런 것을 신용하엿기 때문에 교주를 절대 신앙하여 왓다고 한다.[30]

---

26)「怪敎雲林敎 敎主以下拘禁取調 불온한 표어로써 신도모집」,『매일신보』1936.4.10. 3면.

27)「天下를 統一하야 王位에 올른다고 愚氓을 속혀 金品騙取한 痴漢 怪敎雲林敎主의 正體」,『매일신보』1936.4.16. 7면. 괄호 안의 연도 표기는 필자.

28) 가사문학관 소장 가사집의 표지에 '萬世善和'라 적혀 있으나, 필사본의 제목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

29) 기사에서는「합덕가(合德歌)」가 언급되나, 현재 이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 없다. 앞으로 자료발굴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30)「火田民을 울리든 雲林敎의 正體!」『조선일보』1936.11.7. 3면. 가독성을 위해 본래의

위에서 주목되는 점은 정수승은 본래 '무식한 자'이었으나 신의 영감을 받아 글을 알게 되고 신의 지시로 6권에 달하는 책을 저작하였다는 점이다. 동학을 비롯한 한국 신종교에서는 강화(降話)와 강필(降筆)의 전통이 있는데, 이는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 직접적으로 신의 메시지를 받는 방식으로 이해된다.[31] 『만세선화』 저작 배경에는 이러한 강화·강필 전통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세선화』는 앞서 보았듯 1910년부터 1914년까지 작성되었기에, 선도교(1928년), 운림교(1930년) 성립 이전의 저작이다. 동학 신도의 입장에서 이른바 '신의 지시'에 이끌려 작성된 가사들이지만, 정수승 본인에게 이미 운림처사니 운림선관이니 하는 자각이 존재하였고, 자신의 교단을 창설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만세선화』는 운림교에서 「합덕가」와 더불어 경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운림교의 교세는 크지 않아 그 이름은 잊혀져 버렸고, 특정 종교의 경전이라는 인식도 탈각되어 버렸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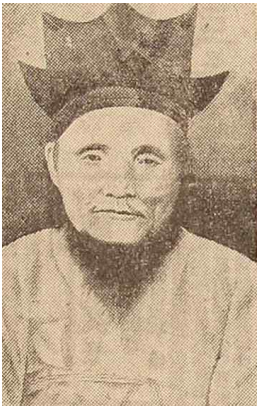

그림 5 <정수승> (『매일신보』, 1936.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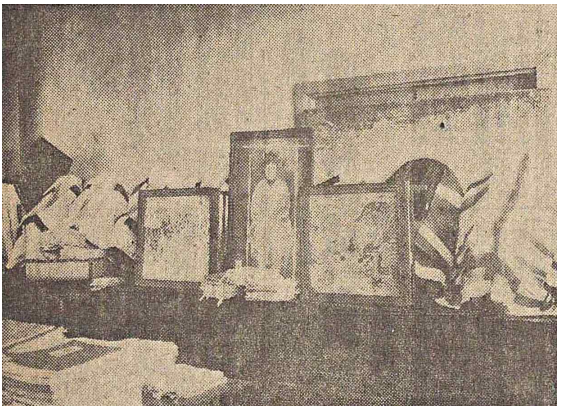

그림 6 <운림교 압수품> (『매일신보』, 1936.11.7.)[32]

기사에서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다.

31) 박병훈, 「동학 강필 연구」, 236.

32) 「雲林敎祖의 立極夢 鐵窓下에 깨어져」, 『매일신보』 1936.11.7. 3면. 기사 부제에 "六百餘卷 怪書와 怪衣裳, 什器 惑世誣民의 諸道具"이라 하였는데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애초『만세선화』의 저작시에는 개인이 영감을 받아 쓴 것이기에 특정 교단의 색을 띠지 않았다. 이는 다른 교단에서『만세선화』를 수용하기에 용이한 조건이 되었다. 수운교에서『만세선화』를 1975년 발간한 배경에는 정수승이 수운교 신자였었다[33]는 사실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이러한 특정 교단의 경전이라는 인식이 탈각되었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하였으리라 본다.『만세선화』는「채지가」,「궁을가」등의 비결가사와 마찬가지로 신종교 공공재로서의 성격[34]을 지니고 수운교에 수용되었던 것이다.[35]

정수승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후 청림교, 수운교의 신도로 지내다가, 스스로 교를 세워 선도교, 운림교의 교주가 되었다. 그의 종교 편력은 마치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권병덕(權秉悳)을 떠올리게 한다. 권병덕은 동학농민혁명부터 천도교(天道敎), 시천교(侍天敎), 시천교총부(侍天敎總部), 수운교(水雲敎), 상제교(上帝敎)를 거쳤으며, 자신이 중앙시천교회본부(中央侍天敎會本部)를 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학 내에서의 다양한 편력에 주목해 이원섭은 그를 '동학 편력자'라 명명하기도 하였다.[36] 정수승은 또 하나의 '동학 편력자'였던 셈이다. 1936년 검거 이후 정수승과 운림교는 역사 속에서 잊혀졌지만, 그 궤적에 대해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면 될 듯하다.

33) 수운교에서는『만세선화』를 정덕호의 강서로 인식하고 있다. 정수승이 강필 등으로『만세선화』를 작성하였고, 수운교 교인이었다는 점을 볼 때, '덕호'는 정수승의 법호(法號)로 추정된다.

34) 박병훈,「한국 비결가사 연구: 비결에서 비결가사로의 전환과 전개」,『종교와 문화』41 (2021): 23-25.

35) 종교가사는 저작의 주체뿐 아니라 수용되는 양태 역시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다. 수운교는 1975년 4월 15일『만세선화』를 발간하였는데, 4월 15일은 교조 출룡자의 탄강일이며, 교단의 주요행사일이다. 출룡자의 탄강일에 맞추어『만세선화』를 발간하였다는 점은『만세선화』가 수운교 교단에서 중시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36) 이원섭,「동학 편력자 권병덕의 종교 생활과 행적」,『종교학연구』40 (2022): 91-115.

Ⅲ.『만세선화』체제와 기존 해제의 문제점

『만세선화』내의 41편의 가사들은 21구의 짧은 가사부터 322구의 제법 분량이 되는 가사까지 다양하다. 가사 각 편의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만세선화』세부사항>

일련번호	제목[37]	쪽수[38]	작성년월(일)	분량 (4음보 1구)	가 사 문학관 소장여부 (제목)	진리보감 및 DB 소장여부	첫 귀절
상 권							
1	상산별곡	1a	庚戌二月	117구	○ (상산별곡)	○	萍草같은 이蹤迹이 蜉蝣같은 이世上에
2	행행곡	4b	庚戌二月	192구	○ (힝힝곡)	○	於化世上 사람들아 太平한 이世上에
3	思鄕曲	10b	庚戌三月	76구	○ (사향곡)		大抵世上 사람들아 이내노래 들어보소
4	驚歎歌	(13a)[39]	庚戌六月	322구	○ (경탄곡)	○	鳳凰山下 미친손이 四海八方 周遊하여
5	天運歌	22b	庚戌六月	142구	○ (천운가)		大明天地 밝은世界 輪回時運 求景하소
6	廣告章	26b	庚戌九月	75구	○ (광고창)	○	哭之痛伏之 歎曰 天下各國 착한兄弟
7	布德歌	28b	庚戌十月	73구	○ (포덕가)	○	平原廣野 좋은田畓 俊한농부 만내어서
8	숫자가(三節)	31a	辛亥正月一日	21구	○ (숫잡가 삼절)	○	一天之下 많은사람 異端길로 가지말고
9	數字賦(三節)	31b	辛亥正月一日	21구	○ (슈자부 삼절)		始與終이 如一하야 心莫向於 持二하라

37) 제목이 같은 가사의 경우, Ⓐ, Ⓑ의 기호를 덧붙여 구별하도록 한다.

38) 페이지 표기는 같은 장에서 먼저 나오는 장을 a, 뒤에 나오는 장을 b라 표기하여 구분한다.

39) 목차에는 쪽수가 누락되어 있다.

10	指道歌	32a	辛亥正月二日	30구	○ (지도가)	○ **(자도가)**	陷之死地 人生들아 順天順理 하여보세
11	龍門山歌	33a	辛亥正月三日	84구	○ (용문산가)	○	紛紛한 世上사람 虛送歲月 하지말고
12	漁夫辭Ⓐ	36a	辛亥正月二十七日	35구	○ (여부사)		寂寞江山 無事客이 浩浩茫茫 大海邊에
13	織錦歌	37a	辛亥五月二十七日	36구	○ (직금가)		天下各國 착한君子 不遠千里 모여들어
14	漁夫辭Ⓑ	38b	辛亥十二月	150구	○ (어부가)		萬古風霜 겪은손이 童謠하나 불러보세
15	解夢歌	43a	辛亥十二月	127구	○ (힌몽가)		國號는 大韓이요 邑號는 商山이라
16	內則篇	47a	辛亥十二月	39구	○ (너측편)	○	天開地闢 하신後에 太陽太陰 밝아서려
17	春秋織錦歌	48a	壬子十月	98구	○ (춘추직금가)		大哉天地 正正經은 本乎元源之德일세
18	天地道德歌Ⓐ	51a	壬子三月	194구	○ (천지도덕가)	○ **(천지도통가)**	開明世界 밝은君子 爲有源頭 活水來에
19	開明盡心歌	57a	辛亥十二月	124구	○ (긔명진심가)	○	天地陰陽 始判後에 百千萬物 化해나서
하 권							
20	天地道德歌Ⓑ	1a	癸丑正月	297구			天地陰陽 始判後에 道之大源 出天하야
21	警世歌Ⓐ	10a	癸丑二月	39구			萬古風霜 겪은손이 노래한장 지어보세
22	龍門山處士歌	11b	壬子十月	62구			四十平生 無事客이 다른할일 바이없어
23	還鄕曲	13b	壬子十二月	85구			萬古風霜 겪은손이 노래한장 지어보세

24	警世歌Ⓑ	16a	壬子十二月	38구			天地日月 明明下에 萬古없는 밝은운수
25	出林歌	17b	壬子十二月 二十八日	35구			우리同胞 學生들아 너무걱정 마르시오
26	下山曲	19a	壬子十二月 三十日	38구			天地가 開拓하야 東洋西洋 마련하고
27	勸農歌	20b	癸丑正月五 日	30구			우리同胞 兄弟들아 一心正氣 다시먹고
28	國文讚頌	21b	癸丑正月十 五日	105구			可憐한 世上사람 그만자고 일어나오
29	未開花歌	24b		18구			風雨霜雪 늙은손이 世上萬事 求景하고
30	旣開花歌	25a	癸丑二月二 十八日	25구			査査한 이내懷抱 仁山智水 좋은風景
31	春江漁夫歌	26a	癸丑七月七 日	105구			春水江邊 漁夫들아 萬頃蒼波 배떴으니
32	九九歌	29a	癸丑九月九 日	35구			九九八十 一等人物 八九七十 二數發達
33	錦繡山 찬송가	30b	甲寅二月二 十五日	137구			大明天地 一乾坤에 無事閑情 一處事가
34	安心歌	35a	甲寅二月二 十九日	183구			開明世界 男女老少 精神차려 安心하소
35	花鳥歌	40b	甲寅三月十 八日	54구			樵夫들아 樵夫들아 擊壤歌 그만하고
36	漁樵歌	42a	甲寅三月二 十五日	85구			四海雲中 모든漁夫 漁歌一曲 불러보세
37	勸學歌	44b	甲寅四月十 七日	27구			曰爾靑年 學徒들아 이내걱정 들어보소
38	商山樵夫 守本歌	45b	甲寅四月十 八日	77구			草野의 賤한몸이 長夜乾坤 受運하야
39	回春歌	47b	甲寅三月二 十八日	106구			밝고밝은 開明世界 天下萬國 男女學徒
40	修身歌	51a	甲寅五月十 一日	214구			百姓들아 百姓들아 우리동국 百姓들아

41	勸酒歌[40]	58a[41]	辛亥十二月	89구[42]			한잔가득 부어내야 解渴을 하온後에

41편이라는 많은 가사들이 있지만, 기존 임기중의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에 소개된 11편을 살피고, 기존 해제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한다. 이는 기존 국문학계의 가사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종교가사라는 점을 모르고 접근하여 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렇듯 분석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다. 본문 인용은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에서 제공하는 원문을 활용하되, 경우에 따라 수운교발행본을 사용한다.

표 2 <『만세선화』 중 11편에 대한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해제내용>

연번	제목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해제내용
1	상산별곡	일간초당 지어놓고 문 밖에 나가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지내다가 생각하니 남아가 세상에 태어나 산 속에서 늙을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는 다시금 세상구경을 하려고 내려오니, 인심이 많이 변하고 예악법도 변하였지만 아직은 인심이 남아 있는 곳이 있어 자신이 편히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꽃구경 한다하고 꽃구경이 끝나면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2	행행곡	이 작품은 봄을 맞이하여, 이웃들과 나선 상춘의 경험을 노래한 가사이다.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하는 무렵의 들뜬 심경에서부터 여행의 과정, 돌아온 이후의 느낌 등이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기행가사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격 기행가사라기 보다는 상춘의 기쁨을 노래한 서정가사로 봄이 옳을 듯하다.

40) 하권의 57a, 57b는「勸酒歌」가 아닌 상권의 57a, 57b에 해당하는「開明盡心歌」가 반복되어 실려 있는데, 이는 상편의「開明盡心歌」 역시 57a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혼동하여 생긴 편집상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勸酒歌」 시작부(하권의 57a, 57b) 한 장이 소실되었고,「勸酒歌」 편명도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41) 상권의 전체 목록에는 '勸酒歌 五七'로 되어 있으나, 주40번의 잘못으로「권주가」는 58장부터 시작한다.

42) 소실된 한 장을 제외하고 현재 남은 구절수이다.

3	驚歎歌	20세기 초엽에 지어진 작품이다. 강전섭 교수 소장의 필사본 『진리보감(眞理寶鑑)』에 국한문 혼용표기로 실려있다. 이 가사의 내용은 고향을 떠나 여러 곳을 떠도는 나그네인 화자가 서양 각국의 문물이 밀려오는 개화기에 있어 참된 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삼강오륜(三綱五倫)의 도리를 지켜야 함을 읊은 것이다. 군자, 배운 선비, 충신열사들이 어서 어서 개화에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배어있다.
4	광고장 [廣告章]	20세기 초엽에 지어진 작품이다. 연대미상의 필사본 『진리보감(眞理寶鑑)』에 국한문 혼용표기로 실려있다. 이 가사의 내용은 유불도(儒佛道)도 하나이고 동서양도 하나인 개화의 시대에 서양 각국 여러 형제들은 고종 황제를 도와 참다운 개화를 이룰 것을 당부하고 있다.
5	布德歌	이 노래는 참된 도덕을 밝혀내어 사람마다 군자가 되고, 천하 백성이 모두 편안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6	슈자가 [숫자가]	일심이 되어 억조창생 하기를 갈망하는 작품이다.
7	자도가 [指道歌]	20세기 초엽에 지어진 작품이다. 연대미상의 필사본 『진리보감(眞理寶鑑)』에 국한문 혼용표기로 실려있다. 이 가사의 내용은 유불도(儒佛道)의 가르침을 모두 명심하고 소중히 하여 자신의 신명(神命)을 보전할 것을 권하고 있다.
8	룡문산가 [龍門山歌]	기행가사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승지와 명찰을 구경하며 선연의 덕을 배워보라는 내용의 노래이다.
9	닉측편 [內則篇]	이 작품은 여자의 행실을 가르친 것인데, 그 내용은 물욕숭상 · 배움회피 ·삼종지도의 배반 등을 경계한 것이다. 남편과 부모님을 잘 섬기고 이웃 간에 화목해야하며 세태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어진 부인이 되는 도리를 배우는 데 게을러서는 안되는 것을 노래한 것이다.
10	천지도통가 [天地道德歌Ⓐ]	이 노래의 전반부는 '도덕주'라는 배가 생겨난 유래와 전해 내려온 과정을 노래하고 있으며, 후반부는 오랜세월 풍파로 묵은 배를 다시 중수하기 위해 광한전에 올라가 상제를 만나서 '도덕주' 중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11	기명진심가 [開明盡心歌]	20세기 초엽에 지어진 작품이다. 강전섭 교수 소장의 필사본 『진리보감(眞理寶鑑)』에 국한문 혼용표기로 실려있다. 이 가사의 내용은 개화기인 지금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공부에 힘써서 천지음양의 이치를 알고 무궁한 개명세계(開明世界)를 열어나갈 것을 권하고 있다.

(1) 상산별곡

해제의 내용은 비교적 정확하다. 다만 여기서 배의 비유가 특징적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화자는 13세 때 비봉산에 들어가 초당을 지어놓고 수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43) 17세가 된 뒤 세상구경을 한다 하고 인심풍속의 탐지를 한 뒤 도덕이 무너져 있고 다른 나라의 종교를 전도하고 있음을 본다.44) 이후 배에 비유하여 시상(詩想)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배를 만들어 한 도덕예절이 있는 곳에 안착하다가 이후 3년 뒤 경술년(1910)에 다시 떠나려는데 배가 없어져서 한번 배를 만들고 행선법을 배워 꽃구경을 위한 세상 주유를 떠난다. 후자의 배는 인의예지, 삼강오륜 등의 도덕 요소에 비유해서 일종의 '도덕가' 형식을 띠고 있다.45)

(2) 행행곡

해제의 내용은 "상춘의 기쁨을 노래한 서정가사"라 하였는데, 여기의 '구경' 및 돌아오는 과정은 일종의 구도행임을 간과하였다. 화자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구경을 나가는데, 갑자기 바람과 비, 운무로 인하여 함께 오던 친구

43) "一심정긔 다시ᄒᆞ여 不출문외 밍셰ᄒᆞ고 정심정긔 안져셔라"

44) "셰上구경 할야ᄒᆞ고 쥭장마헤 낫실젹에 쳥운에 뜻시읍셔 셰상구경 두루한이
인심이 不평하야 예악법도 다변ᄒᆞ고 의관문물 가이읍네 통곡할들 읏지ᄒᆞᆯ
구경이나 ᄒᆞ여보셰 쥬류四方 단이면셔 방방곡곡 차저들어 人심풍송 살펴본이
우리조션 옛날범절 문병지지 다바리고 싱젼못본 타국법을 서로서로 젼도한이
한탄ᄒᆡ도 무가니ᄒᆡ라 만고승현 공자도덕 다시차자 보랴ᄒᆞ고"

45) "터극으로 부판ᄒᆞ고 정음정양 셥흘하고 三강으로 닷츨달러 인의예지 지미삼어
오힝으로 단쳥ᄒᆞᆫ이 ᄇᆡ는이메 모와스되 힝션하기 어렵도다 션법을 ᄇᆡ우랴고
동쳥용 셔빅호와 남주작 북현무로 五方정위 ᄒᆞ온후에 元형이정 발켜니여
쳔지이기 비릿슨이"

들을 다 잃게 된다. 돌아가려 할 때 전에 오던 큰길 또한 잃었다. 그리하여 많은 고생을 하며[46] 발길 닿는 대로 향하였는데, 한 주인을 만나 길을 알려주게 되고,[47] 돌아가는 길에 도덕봉에 신선이 강림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도덕으로 기둥 세우고, 인의예지로 칸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도덕봉에 올라가 성인을 만나 보국안민의 분부를 받게 된다. 도덕과 성인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단순한 서정가사로 봄은 잘못이다.

(3) 경탄가

개명, 개화를 주요 주제로 노래하고 있다. 특히 황제가 있는 궁궐을 헐고 다시 크게 한번 지어낼 것을 말하는 점이 특징적이다.[48] 이렇게 지을 때 "오행으로 주초놓고 원형이정 기둥세워 팔조목으로 도리언고 태극으로 ..." 등등 건축 자재 부분들을 기존 유교의 개념과 도덕내용들에 비유하고 있는 '도덕가'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4) 광고장

개벽운수의 때에 천상선경 조화법을 세상에 펴게 되면 개명을 맞이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황제에 대한 존경심("요순갓튼 우리황제", "셔양각국 착한형제 발

---

46) "침침칠야 운무중에 독한바람 추운비가 이다시 졸난하니 살아닐길 다시없네 어찌하야 가잔말가", "여광여취 이사람이 구경하러 다니다가 무인지경 길을잃고 기한갈증 못면해서"

47) "효박한 이셰상의 큰질부ᄃᆡ 가지마요 위방 불입이요 난방 불게라
자고급금 일너씨니 부ᄃᆡ부ᄃᆡ 가지말고 유형무형 무거씨다 이젼질로 다니시요
이려타시 당부하고 질을차자 가라치되 이질을 일치말고 차차차차 가다보면
질가운되 풀련슘풀 입입총총 하엿씨니 숨풀짜라 드려가면 ᄭᅩᆺ도역시 찰난하고
푼련숨풀 그가오ᄃᆡ ᄭᅩᆺ치만발 하엿씨니 그련경ᄀᆡ 더려본가 경ᄀᆡ도 졀승이요
경ᄀᆡ짜라 드려가면 ᄃᆡ도쳐가 거기로셰 이갓치 인도커늘"

48) "누가능히 막아던고 오셩한음 장ᄒᆞᆫ충졀 근심읍시 밧드러셔 오날가지 젼ᄒᆡ슨이
이런충졀 본을바더 보국안민 하여보셰 텬운이 순환하ᄉᆞ 무왕불복 하시난이
명셩ᄒᆞ신 우리황제 만셰춘이 불원일셰 궁궐형셰 둘너본이 풍우도 침노하고
텬ᄒᆞ만국 도회처가 협착ᄒᆞ여 읏지ᄒᆞᆯ고 충신열ᄉᆞ 모와들러 어셔급히 허러ᄂᆡ여
굴근ᄌᆡ목 구ᄒᆡ드려 크게한번 지여보셰"

근덕을 널이펴여 명셩하신 우리황제 걱졍근심 푸러쥬오”)이 엿보인다. 해제에는 ‘고종 황제’로 되어 있으나 수운교발행본『만세선화』하권의「商山樵夫守本歌」를 참고할 때,「광고장」을 비롯한『만세선화』전반에서 언급되는 황제는 고종이 아닌 순종임을 알 수 있다.[49]

(5) 포덕가

유불선을 각각 지운, 인운, 천운이라 말하고, 천지인합덕운에 선유불도가 각각 거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하여 유도와 불도로 수천년간 지내왔으나 탕패가산 되었음을 지적하고, 선도로 합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유교와 불교가 아닌, 선도를 닦아야 함이 이야기되고 있다.[50] 이러한 점은 다음에서 특히 잘 나타난다.

> 儒家佛家 입던衣服 아무리 아꼈던들 仙境衣服 當할손가 儒道佛道 착한道德
> 仙道로 合德하면 三月春風 花世界라 河淸鳳鳴 때가왔네 儒道佛道 밝은君子
> 仙道를 웃지말고 한울님을 잘믿으면 不老不死 하련만은 어찌그리 모르는고
> 이世上 開闢運數 我東方 三年怪疾 不遠間에 當해오니 仙道外에 免할소냐[51]

기존 유교, 불교보다 선도 및 한울님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고 있고, 삼년간의 괴질이 닥쳐오는 개벽운수에도 선도를 통해 이를 면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시운에 따라 닥쳐올 위기를 언급하는 것은 동학을 비롯한 신종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점들이다. 해제에는 이러한 점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6) 슈자가

숫자가는 숫자를 활용하여 외우기 쉽게 가사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강

---

49) 본고 ‘Ⅴ.3. 동학과 신존왕주의’ 참고.

50) “유도佛도 수천연에 탕피가산 ᄃᆡ여신이 선도乙 合게ᄒᆞ야 영셰무궁 하여보셰”, “유가불가 무근살임 긔쳔연 흔의복을 이世上에 다바리고 션졍의복 지여ᄂᆡ여 一식지명 되게되면”

51) 필사본의 구절들이 다소 난삽하여 수운교발행본에서 인용한다.

점기부터 많이 불렸던 숫자가류 가사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 이, 삼, 사, ... 백, 천, 만, 억 등의 숫자가 반복되고 있다. 길지 않으므로 전문을 인용하고 구(句)의 처음에 숫자, 혹은 숫자와 발음이 같은 자(字)가 등장하는 곳을 표시해 이해를 돕기로 한다.

一天之下 많은사람 異端길로 가지말고
三神山 不死藥을 四海의 흐터보세
五百餘年 聖德下에 六國諸侯 進退하네
七縱七擒 하는法과 八陣圖도 쓸대없고
九萬長天 높은길을 十里같이 往來하야
百家詩書 仙道法을 千変萬化 修煉하야
萬國風塵 開闢時의 億兆蒼生 건져주세

일이났네 일이났네 李氏宅의 일이났네
三災運數 지내거던 四海兄弟 開化하야
五百餘年 우리皇帝 陸地같이 回復하세
七十二人 그가운데 八君子가 높았구나
九宮數 河圖洛書 十目所視 都會中에
百戰百勝 하여볼가 千秋慶節 우리皇帝
萬歲萬歲 祝壽하고 億兆蒼生 살려주세

一心正氣 우리兄弟 伊川에 배를띄워
三月春風 好時節에 四時長春 놀아보세
五倫을 밝혀내니 六親이 和樂이라
七十老人 稱讚마오 八百年도 夭壽로다
九月九日 龍山飮은 十年工夫 마쳤구나
百萬人도 不足이오 千萬人도 不足이라
萬國人生 開化하니 億兆蒼生 一心일세[52]

52) 숫자가 잘 표기된 수운교발행본에서 인용한다.

(7) 자도가

다른 본에는 '指道歌'로 나타나는데, 강전섭 소장『진리보감』에서는 '자도가'로 되어 있고, DB에는 '자도가(自悼歌)'로 한자를 병기해 두었다. 선도를 강조하고 있으나, 유교 및 불교도 함께 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53]

(8) 룡문산가

처음에 멱라수(汨羅水), 수양산(首陽山) 등 지조와 관련한 굴원, 백이, 숙제 등의 인물과 관련한 중국 지역들을 찾아가는 다소 허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후 두문동(杜門洞), 공자동(孔子洞), 영수동(靈水洞)[54], 석씨동(釋氏洞), 신안동(新安洞), 선유동(仙遊洞)을 찾아가는데, 공자동, 석씨동, 선유동은 각각 유불선을 상징하는 공간이다.[55] 해제에서 기행가사라 하였는데, 허구적 모습 역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9) 닉측편

화생만물 중 사람이 최령하고, 그 최령함은 남녀가 다르지 않다고 시작하여, 여자의 실을 자아내서 옷을 짓거나 꿰메는 일 등을 남자가 대신하게도 되었고, 여학교가 생겨나 학업도 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여전히 여자로서 지켜야 할 일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하늘을 공경하여 이치에 따르고, 성현들의 경전도 세세히 살필 것을 강조한다. 세속적인 것 이외에 종교적 측면 역시 실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53) "석씨셩인 닥근길로 어셔급히 단이면셔 佛도은덕 갑푼후에 仙도가 발가온이 유불션도 비반말고 선도을 닥가보셰"

54) "孔夫子 하신말씀 ... 한울님의 指麾로서 너를만나 破惑하니 道德開化 가져서라 이렇다시 分付하니 未免無識 이知覺이 萬古聖靈 모시고서 慶北尙州 찾아오니 龍門山下 靈水洞은 우리父母 基地로다"

55) 영수동 등을 비롯해 경북 상주 내 실제 존재하는 공간도 여럿 지칭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10) 천지도통가

수운교발행본『만세선화』에서는 '천지도덕가'로 되어 있다. 도덕의 배, 곧 도덕주(道德舟)를 당초에 천황씨(天皇氏)가 만들었고, 이후 도덕주는 지황씨(地皇氏), 은(殷) 성탕(成湯), 주(周)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 공자(孔子), 자사(子思), 맹자(孟子),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 주렴계(周濂溪), 주자(朱子)를 거쳐 마침내 조선으로 들어온다. 누천년 묵은 배이기에 화자가 중수하여 천하인민을 구하려 한다. 이런 상상력은 황하수(黃河水)를 올라가 은하수(銀河水)까지 다다르는데, 직금성(織錦聲)이 들려 찾아가 주인을 만나 자신이 천하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온 것을 말하고, 상제가 어디 있는지 묻는다. 이후 광한전 동자에게 사지에 든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덕주를 중수하기 위해 왔다고 하였는데, 이를 상제가 듣고 들어오라 한다. 이후 "開闢後 於萬年에 勞而無功 하다가서 너를만나 成功하니 나도成道 너도得意 너의집안 運數도다"라 하고, 묵은 도덕주를 중수하게 되어 제모습을 찾게 된다. 그리하여 다시 은하수, 황하수를 거쳐, 금강산수를 굽어 들고, 용문산에 배를 매게 된다. 이후 도탄에 빠진 인생들이 태평곡을 부르게 된다. 이를 볼 때 천지도통가는 곧 天地道統歌, 도통의 계승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의 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해와 이 배로 은하수까지 가 상제를 만난다는 상상력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한 점은 여타의 가사와 비교해 봐도 훌륭한 문학성까지 지니고 있다.

(11) 지명진심가

한울님이 성인이 태어나 천명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말한 뒤, 현 세상이 혼돈세계임이 분명하다 하고, 이러한 세계를 밝히기 위해 삼강오륜 등의 도덕적 가르침을 내세우고 있다. '불연기연', '포덕천하' 등의 동학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반적으로 종교가사적인 성격이 파악이 되지 않아, 간략한 해제에서도 여러 잘못들이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가사를 한 편, 한 편 따로 다루는 데서도 발생한다. 가사가 각 편으로 나눠져 있기에 좀 더 큰 범위에서 조

망하기 어려워진다. 가사집이라는 단위 아래서 순서 및 가사 외에 수록된 여타 자료까지 함께 유기적으로 살펴야만 온전한 이해가 가능해진다.[56] 강전섭 소장 필사본『진리보감』역시 가사집 형태로 제공된다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

Ⅳ.『만세선화』와 가사 전통의 계승

모든 장르의 문학은 무(無)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장르의 관습에서 영향을 받고 다시 나름의 새로운 점을 만들어나간다. 여기서는 기존 장르, 곧 일반가사에서의 도덕가류의 영향과『용담유사』의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신종교 가사가 기존 가사 장르와 차이점을 보이는 불연속성뿐 아니라 연속성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1. 도덕가류와의 관련성

앞서 보았듯,『만세선화』는 유교와 마찬가지로 삼강오륜에 대한 도덕의 내용이 중시되고 있으며, 특히 집이나 배의 각 구성요소를 도덕의 내용에 비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조선시대 도덕가사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조선시대 많은 도덕가사 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도덕가(道德歌)」이다.「도덕가」의 명칭은 도덕가 외에도「공부자궐리가(孔夫子闕里歌)」,「권선가(勸善歌)」,「지로가(指路歌)」,「권선지로가(勸善指路歌)」,「안택가(安宅歌)」,「인택가(仁宅歌)」,「등루가(登樓歌)」,「유학지로가(幼學指路歌)」,「퇴계선생도덕가(退溪先生道德歌)」,「권의지로가(權義指路歌)」,「퇴계가(退溪歌)」,「궁장가(宮墻歌)」등으

56) 예컨대『채지가』나「궁을가」와 같은 비결가사들은 한 가사집에 필사되는 경우가 왕왕 보인다. 이는 비결가사를 모아 보고자 하는 필사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증산교 관련 가사집은 서전 서문이 같이 필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증산이 서전 서문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필사자의 의도는 전체 가사집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에 기록된 텍스트 이외의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로 다양하다. 비정되는 작자[57]도 퇴계[58]뿐 아니라 남명[59], 율곡, 주세붕[60] 등으로 다양하다. 이렇듯 다양한 이름으로 인해 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학계의 관심이 주목된 바 있다.

영조 또한 「권선지로가」를 이황의 소작으로 여기고, 그에 감탄하여 「권선지로행」을 짓기도 했으나 이후 저작여부를 퇴계의 후손에게 물어보기까지 했다는 일화[61]를 보면 이황이 지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당대에도 저자에 대한 의문 역시 존재했다는 점들을 알 수 있다. 박연호의 연구에서 잘 다루어져 있듯[62], 「도덕가」는 이황의 이름을 가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덕가」는 수많은 이본에서도 알 수 있듯 광범위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 도학(道學)의 내용과 계보를 집구경에 비유하여 전개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유교의 이념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핵심 내용을 간략히 살

---

57) 김기탁, 「퇴계가사의 사상성 고찰 -특히 도덕가사류를 중심하여-」, 『한민족어문학』 6 (1979): 1-22; 이동영, 「「도덕가」에 대하여-작자와 신본」, 『도남학보』 1 (1978): 35-40; 이동영, 「퇴계의 가사소작설 변정」, 『한국문학논총』 5 (1982): 39-57; 조기영, 「퇴계의 「道德歌」 이본 비교 연구」, 『동양고전연구』 3 (1994): 261-310; 허경진, 「退溪의 「仁宅歌」에 대하여」, 『목원어문학』 7 (1988): 194-204.

58) 김성배·박노춘·이상보·정익섭 공편, 『가사문학전집』 (서울: 집문당, 1961). 퇴계는 이외에도 「금보가(琴譜歌)」, 「상저가(相杵歌)」, 「효우가(孝友歌)」, 「환산별곡(環山別曲)」도 그의 소작으로 여겨진 바 있다. 이는 퇴계의 유학자로서의 높은 명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관련 연구로 박연호, 「퇴계가사의 퇴계소작 여부 재검토」, 『우리어문연구』 36 (2010): 7-32; 서원섭, 「퇴계의 금보가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3 (1975): 59-72; 서원섭, 「퇴계의 상저가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8 (1979): 25-50; 서원섭, 「퇴계의 효우가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9 (1980): 21-53; 이동영, 「「환산별곡」 작자에 대하여-퇴계의 소작이 아니다」, 『가사문학연구』 (부산: 부산대출판부, 1987), 386-394.

59) 박노춘, 「도덕가(道德歌) 「남명(南溟) 조식(曹植) 작(作)?」」, 『국어국문학』 20 (1959): 202-203; 박노춘, 「이른바 『道德歌』의 異稱·作者에 關한 小考」, 『文湖』 3 (1964): 15-17.

60) 이동영, 「周世鵬과 道德歌」, 『국어국문학』 84 (1980): 268-271; 조규익, 「周世鵬의 국문노래 연구」, 『한어문교육』 1 (1993): 153-171.

61) 김승우, 「영조(英祖)의 국문시가 향유와 어제 「권선지로행(勸善指路行)」에 대한 연구」, 『한국시가연구』 38 (2015): 251-284. 결국 영조는 이황의 후손과의 대화에서 이황의 소작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다.

62) 박연호, 「퇴계가사의 퇴계소작 여부 재검토」, 『우리어문연구』 36 (2010): 7-32.

펴본다.

표 3 <「도덕가」의 내용>

	「도덕가」 내용부 인용[63]	내 용
1	어와 번님네야 집구경 가자셔라 집이ᄉᆞ 만컨만ᄂᆞᆫ 차ᄌᆞ갈집 ᄃᆞ르니라(중략) 우쥬에 비겨셔셔 상상고를 ᄉᆡᆼ각ᄒᆞ니 아마도 죠흔집은 공부ᄌᆞ님 집이로다	공자의 집을 찾아나섬
2	쥬공의 노푼도덕 죠흔터 ᄯᆞ가노코 번리를 ᄇᆡ포ᄒᆞ고 ᄃᆡ가를 일우실제 오ᄒᆡᆼ으로 쥬초박고 인의녜지 기동삼마 삼강령 ᄃᆡ양언고 팔조목 도리거라 육십ᄉᆞ쫴 ᄲᆞᆷ아ᄂᆡ야 기기연목 거러노코 삼ᄇᆡᆨ팔십 ᄉᆞ효슈를 ᄎᆞᄎᆞ로 산ᄌᆞᄇᆡᄌᆞ 오십토로 알매업꼬 ᄐᆡ극으로 기와ᄒᆞ야 일월셩신 창호ᄒᆞ고 낙귀하마 단청ᄒᆞ니 어와 장할시고 이러ᄒᆞᆫ집 업슬쇼냐	집의 각 구성 요소를 열거하며 유교적 도덕과 역리(易理)를 비유함.
3	인문을 놉히열고 의로를 크게짝가 예악문물 가초노고 오ᄂᆞᆫᄉᆞᄅᆞᆷ 밧지ᄒᆞ니 궁장의 깁흔곳데 누긔누긔 엿보던고 누항츈풍 단표ᄉᆞᄂᆞᆫ 실즁의 드러잇고 풍호무우 영귀인은 당상의 올나닛고 ᄌᆞ로염유 민ᄌᆞ건은 문안에 게유드니 칠십제ᄌᆞ 숨천인은 녁녁히 성길소냐	집에 들어와 있는 공자의 제자들을 열거함.
4	명도ᄭᆡ 길을물어 이천에 ᄇᆡ를 ᄲᆡ워 가ᄃᆞ가 져물거던 회암에 드러ᄌᆞ고 광풍졔월 말근곳에 공즁누각 구경ᄒᆞ고 구인ᄉᆞᆫ을 나려가셔 아셩공집 구경ᄒᆞ고 아셩공집 구경후의 복셩공집 구경ᄒᆞ고 복셩공집 구경후의 슐셩공집 구경ᄒᆞ고 슐셩공집 구경후의 죵셩공집 구경ᄒᆞ고 죵셩공집 구경후의 ᄒᆡᆼ단을 바ᄅᆡ보니	맹자, 안자, 증자 등의 집을 구경감
5	불원쳘이 왓짜가셔 이집구경 못ᄒᆞ오면 전공가셕 되오리라 공휴일괴 ᄒᆞᄃᆞᆫ말가 어와 후ᄉᆡᆼ들아 ᄌᆞᄌᆞ근녁 ᄌᆞ로ᄒᆞ여 궁니졍심 수신후에 이집구경 가ᄌᆞ셔라	수양을 통해 집구경을 갈 것을 재권유함

유학의 내용과 계보를 집구경에 비유한「도덕가」는 가사를 통해 쉽게 내용을

63) 가사문학관 소장「도덕기라」에서 인용.

전달할 수 있는 교훈가사적 성격을 띠었고, 유학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거유(巨儒)인 이황에 작자를 가탁하기도 했던 것이다. 여러 도덕가사 중 「도덕가」의 인기는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며, 조선기 유교의 입장을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곧 여기서 도덕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인의예지, 삼강령 팔조목 등 윤리적 요소 외에도 64괘 384효 등 주역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며, 공자로부터 시작하는 유학자들의 계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도덕은 자명한 것으로서, 도덕 자체에 대한 의문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미 유교 내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열거하며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하겠다.

2. 『용담유사』와의 관련성

『만세선화』는 기존 도덕가류 전통을 이은 것 외에도 동학가사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용담유사』의 영향 역시 보이고 있다. 『만세선화』 내의 거의 모든 가사에서 이러한 영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중 「천지도덕가」Ⓐ, 「개명진심가」만 비교해 보기로 한다.

앞서 보았듯 「천지도덕가」Ⓐ에서 도덕주를 타고 은하수를 건너 상제를 만나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開闢後 於萬年에 勞而無功 하다가서 너를만나 成功하니 나도成道 너도得意 너의집안 運數도다" 이는 『용담유사』 「용담가」에서의 "하늘님 하신 말씀 개벽 후 오만 년에 네가 또한 첨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이무공 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의 너희 집안 운수로다"에서 차용한 것이다. 경신년(1860)의 수운과 상제와의 천사문답(天師問答), 혹은 강화(降話) 체험으로부터 동학은 출발하는데, 은하수까지 도덕선을 타고 간 이후 이러한 상제의 말을 듣는 것으로 변용되는 점은 뛰어난 문학적 형상화라 하겠다.

「개명진심가」의 첫머리는 "天地陰陽 始判後의 百千萬物 化해나서 至愚者 禽獸요 最靈者 사람일세"라 시작하는데, 이는 『용담유사』 「도덕가」의 첫머리와 같다. 이러한 시작은 금수와 사람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인간이 도덕성을 갖추어야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기본명제를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사람마당 最

靈할가"라 물으며, 모든 인간이 다 최령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이전 시대 성인들의 가르친 바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밝히고 하늘을 공경하고 따르는[敬天順天] 도덕에 있었다고 한다.64) 그리고 성인들이 전해온 도덕의 가르침이 잊혀져 버린 점이 다음과 같이 한탄된다. "自古及今 忖度해도 聖賢外에 다시없네 이러므로 世上일이 難之而猶易하고 易之而難인줄을 어찌그리 모르는고(「開明盡心歌」)" 이같은 한탄은 다음의 「흥비가」의 구절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러므로 세상 일이 난지이유이하고 이지이난인 줄을 깨닫고 깨달을까(「흥비가」)"

성인이 전하던 가르침이 끊이어 작금의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공경심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곧 "其中의 沒覺者는 서로서로 하는말이 지금은 老天이라 靈驗도 없다하고(「開明盡心歌」)"라 하고 있다. 이는 「도덕가」에서의 "몰몰한 지각자는 옹총망총 하는 말이 지금은 노천이라 영험도사 없거니와"에서 가져온 것이다.

『용담유사』 구절들을 적재적소에 차용함으로써 동학가사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단순히 구절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전체적 사상의 내용 역시 면면히 관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만세선화』의 특징과 의의

앞 장에서 『만세선화』와 기존 가사 전통과의 연속성을 살폈다면, 본 장에서는 『만세선화』가 갖는 특징을 보고, 그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선도(仙道)의 강조

최제우는 "유도불도 누천년에 운이역시 다했든가"65)라 하여 시운(時運)에 따

64) "最靈함을 들어보소 以前時節 聖賢들도 守心正氣 그가운대 仁義禮智 밝혀내야 敬天順天 하실적에 理陰理陽 하여내야 好生好成 착한聖德 一天下 많은사람 一體로 敎訓하사 四大五常 그가운대 明明其德 하여내야 率性爲道 하는故로 最靈者 사람이라 이같이 밝혀내야 永世無窮 傳해시되 아는사람 몇몇인고" (「開明盡心歌」)

른 유교와 불교의 역할을 지적한 바 있다. 동학 이후의 한국 신종교들도 이러한 관점처럼 기존의 종교와 자신의 교단의 역할을 가사를 통해 드러내었다.66) 기존 종교는 보통 삼교(三敎)라 하여 유불도(儒佛道) 혹은 유불선(儒佛仙)으로 이해된다. 선도(仙道)의 경우, 도교와 보통 동일시되는 항목이지만 때로 다른 의미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다.67) 『만세선화』「포덕가」를 통해 선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기로 한다.

> 仙道를 발키려면 太陽으로 灯불달고
> 元亨利貞 밝혀내면 한울길이 昭詳하니
> 仙道가 分明하고 儒道를 밝히려면
> 月光으로 燭불삼아 仁義禮智 밝혀내서
> 孝悌忠臣 알게되면 儒道聖德 分明하고
> 佛道를 밝히려면 心經을 밝혀내야
> 虛實相論 하여보면 虛者는 易知道요
> 實者는 易知德이라 大慈大悲 닦아내
> 佛家道德 分明하네 이같이 좋은道를
> 어찌아니 밝힐소냐 天地人 三合運의
> 仙儒佛 旺盛하야 枝枝葉葉 茂盛해서(…)
> 仙道는 天運이요 佛道는 人運이요
> 儒道는 地運일세 이같이 밝은大道
> 한가진들 버릴소냐 (「布德歌」)

선도(仙道)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을 밝혀 하늘길을 밝히고, 유도(儒道)는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밝혀 효제충신(孝悌忠臣)을 알게 하고, 불도(佛道)는 심경(心經)을 밝혀 대자대비(大慈大悲)를 닦아내게 한다. 선도, 유도, 불도 세 도가 합해져 왕성해지는 천지인(天地人) 삼합운(三合運)으로 당대의 시운을 바라보고 있

65) 『용담유사』「교훈가」

66) 박병훈, 「한국 근대 신종교가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1), 78-79.

67) 예컨대 이순화의 정도교(正道敎) 같은 경우 기독교를 선도(仙道)로 보고 있다. 박병훈, 「한국 근대 신종교가사 연구」, 82.

다. 삼교는 이중 한 가지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기존 삼교 역시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 가운데 선도(仙道)의 역할을 강조한다.

儒道佛道 數千年에 蕩敗家産 되었으니
仙道로 合居하야 永世無窮 밝혀보세
一天之下 同胞네의 한氣運을 타고나서
是是非非 무삼일고 各살림을 하자하니
各自爲心 우리兄弟 서로서로 잘살려고
兄弟間에 是非하니 天地父母 不安할줄
世上사람 뉘가알가 累千年 묵은살림
仙道로 合産하야 與天地 無窮토록
兄友弟恭 지내오면 一心開化 이아닌가 (「布德歌」)

유도와 불도는 수천년 동안 나라를 탕패가산(蕩敗家産)과 같은 형편으로 만든 책임이 있으니, 선도로 함께 거하여 영세무궁토록 밝히자고 말한다. 각자위심(各自爲心)의 상태에 놓인 동포형제들이 서로 간에 시비하고 있는 당대의 어지러움으로 인하여 천지부모(天地父母)가 불안해 하기에 선도로 살림을 합하여 동포형제가 사이 좋게 지내면 일심개화(一心開化)가 될 것이라 한다.

儒道佛道 착한道德 仙道로 合德하면
三月春風 花世界라 河淸鳳鳴 때가왔네
儒道佛道 밝은君子 仙道를 웃지말고
한울님을 잘믿으면 不老不死 하련만은
어찌그리 모르는고 이世上 開闢運數
我東方 三年怪疾 不遠間에 當해오니
仙道外에 免할소냐 九萬長天 仙境길을
元亨利貞 곧게닦아 仁義禮智 밝혀내어
착한仙人 모시고서 仙官行次 陪行가세
仙道가 創建되야 仙境法을 施行하면
天上에 雲林仙官 河馬洛龜 몰아내어
則天之道 밝은法을 仙道로 重修하야 …

이世上에 펴게되면 德建名立 時乎로다
我東方 賢君子는 平生에 배운道를
숨어앉아 嘲弄말고 가르치기 爲主하소
布德天下 이때로다 (「布德歌」)

선도를 중심으로 유도와 불도의 도덕을 합덕하면 삼월춘풍(三月春風) 화세계(花世界)의 호시절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록 유도, 불도의 군자들이 선도를 비웃고 있으나 앞으로 머지않아 올 삼년괴질(三年怪疾)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는 선도를 따라야 한다고 한다. 이 선도의 내용은 한울님을 믿는 것이고, 하늘을 본받는 것[則天之道]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선도는 동학을 지칭하거나 동학의 선(仙)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용어이다. 이 『만세선화』「포덕가」는 종교적 자의식을 갖고 배운 도를 세상에 널리 가르치기를 촉구한다.[68] 기존 유불선 삼교 중 선도란 용어를 활용하여 동학을 포교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수승이 이후 1928년 선도교(善道敎)를 세웠다 하는데,[69] 『만세선화』에서는 선도(仙道)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선도교의 한자 표기는 '仙道敎'가 맞으리라 본다.

2. 청림(靑林)에 대한 인식

『만세선화』「천지도덕가」는 인류의 탄생부터 내려오는 도의 연원에 대해 짚어가며 설명하는 가사로, 동학 이전의 종교에 대한 인식과 동학의 계승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곧 천황씨(天皇氏), 지황씨(地皇氏), 인황씨(人皇氏)부터의 소위 삼황부터 공자(孔子), 안자(顔子), 증자(曾子), 맹자(孟子), 동중서(董仲舒), 주렴계(周敦頤),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 주회암(朱晦菴) 등의 유교 인물들,

68) 박인규는 기독교가 배타적 멤버십을 토대로 종교 커뮤니티를 구성한 것과 같이 동학이 '포덕(布德)'을 통한 '입도(入道)'를 강조했음을 말하며, 이 '포덕'과 '입도'는 기존 한국 종교문화에 쓰이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임을 밝히고 있다. 박인규, 「동학의 입도의례 연구」, 『종교연구』 82 (2022): 64.

69) 『매일신보』(1936.4.16)에는 '善道敎'라 한자표기하였다.

노자(老子), 장자(壯子) 및 석가(釋迦) 등의 도교, 불교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후 조선의 평양, 한양을 열거하고 이후 수운 최제우의 탄생지이자 동학이 시작된 곳인 용담(龍潭)으로 찾아간다.

龍潭으로 찾아가니 奇壯하다 奇壯하다
無極大道 奇壯하다 大夫子 집진體格
한울님宅 彷佛하다 曾前에 들어보니
한울님 하신分付 謂我呼父 하시기로
修心正氣 更定해서 以氣養天 하셨던가
天一生水 깊은淵源 龍潭으로 合水하야
洋溢乎 四海로다 儒道佛道 묵은길을
仙道로 닦아내니 治天下之 大道로다
三七字 그려다가 人間마귀 항진하니
無知한 世上사람 얼풋이 알아내야
無爲而化 되었구나 輪回같이 둘린運數 …
萬古없는 無極大道 진성진미 효유해서
天心으로 닦아내니 萬古大聖 아니신가 (「天地道德歌」Ⓑ)

동학의 가르침은 한울님과 관련한 것이기에 "大夫子 집진體格 한울님宅 彷佛하다"고 표현하고, 하늘이 수운에게 내린 가르침("한울님 하신分付 謂我呼父 하시기로"), 동학 강시 등을 말하고 있다("三七字 그려다가 人間마귀 항진하니"). 이어 동학의 2대 교조 해월 최시형에 대해 언급한다.

금곡으로 돌아드니 明明하신 海月先生
一片心 깊이먹고 恭敬히 받은文字
毫末도 變치않고 거울같이 전해주니
그아니 壯하신가 功德이 泰山일세 (「天地道德歌」Ⓑ)

금곡이라 함은 최시형이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검곡(劍谷)을 말한다. "恭敬히 받은文字 毫末도 變치않고 거울같이 전해주니"란 동학의 교조이자 스승인 최제우가 저작한『동경대전』,『용담유사』를 발간한 공로를 일컫는 것이다. 이같이 동학

경전을 발간하여 후대에 전한 것을 태산같은 공덕이라 칭송하고 있다. 최시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山外山을 넘고넘어 水外水를 건너서서
青林宅을 찾아오니 奇壯하다 奇壯하다
青林道德 奇壯하다 前에없던 心經脉絡
보지못한 心經脉絡 듣지못한 道德진원
거울같이 밝혀내야 개벽後 五萬年에
勞而無功 하시기로 乾坤이 位를바꿔
陰陽代序 하신일과 艮巽이 자리바꿔
胞胎之數 定한法을 昭昭明明 圖本하니
그아니 壯하신가 先天때 伏羲氏는
龍馬보고 河圖내고 後天때 夏禹氏는
靈龜보고 洛書내되 鮮明하신 青林道德
物形없는 정경도를 보는드시 그려내야
萬古事迹 되었으니 그아니 奇壯한가
萬古없는 大聖일세 (「天地道德歌」Ⓑ)

앞서 용담의 수운, 검곡의 해월에 이어 간난신고 끝에 청림댁의 청림(青林)을 찾아오게 된다. 청림의 도덕이 기장(奇壯)하다고 찬탄하며, 보고 듣지 못했던 심경(心經)의 맥락과 도덕의 진원을 거울같이 명백하게 밝혀내었다고 칭송한다. 이에 건곤乾坤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음양의 순서가 갈마들고, 간손(艮巽)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포태(胞胎)의 운수가 정해졌다는 점을 말한다. 그리하여 선천 때의 복희씨가 용마(龍馬)를 보고 작성한 하도(河圖), 후천 때의 하우씨가 영귀(靈龜)를 보고 그려낸 낙서(洛書)에 이어 현 시운[70]에서 청림이 물형없는 정경도(正經圖)를 그려내었다고 하며 세상에 비길 데 없는 대성인으로 일컫고 있다. 이는 이전의 세계를 선천,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후천으로 보는 일반적 시운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주의를 요한다.

70) 『만세선화』「錦繡山 찬송가」에서는 이 세 운수를 '河圖洛書 正經운'이라 칭한다. 곧 선천은 하도운, 후천은 낙서운, 현 시운은 정경운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청림에 대한 찬탄은 정수승이 청림교에 대한 인식[71]에서 비롯하는 것임은 분명할 것이다. 정수승은 자신을 운림(雲林)처사, 운림선관이라 하였는데 이는 청림에 대한 어떠한 연속성을 상정한 듯하다. 청림, 혹은 청림교에 대한 가사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72]『만세선화』도 청림교의 사상을 담고 있는 가사로 보고 앞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동학과 신존왕주의

『만세선화』는 1910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이후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대한제국기 2대 황제로 있다가 대한제국 붕괴 이후 왕으로 강등되었던 순종(純宗, 재위 1907~1910)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돋보인다. 당시 국민들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지열기는 이미륵이 "우리는 우리의 조국과 임금을 위해서 열광적으로 만세를 불렀다."[73]라고 할 정도였는데, 황태연은 이러한 사상을 '신존왕주의'라 명명하고, "최제우와 전봉준의 가슴 속에 간직되었고 일반유생들의 가슴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일종의 '우리임금제일주의', 또는 우리나라 임금을 대내최고·대외독립의 '지존(至尊)'으로 받들고 이 '지존'의

---

71) 다음 기사에 "최초 정수승은 청림교(靑林敎)라는 교의 신자이엇는대"라 하여 청림교 신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火田民을 울리든 雲林敎의 正體!」『조선일보』 1936.11.7. 3면. 다만 청림교의 성격이 단일하지 않기에 정수승이 몸을 담았던 청림교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청림교란 이름으로 활동한 자생종교 집단들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한승훈, 「역사적 최제우와 청림교의 비밀결사들: 한국 자생종교에서의 종교와 저항 폭력」, 『한국종교』 51 (2022): 64. 다만 1910년대 이전 남접계통의 동학계 교단으로 경천교(敬天敎)를 들 수 있는데 이와 정수승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경천교는 정광덕, 김주희 등이 1904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창립하였고, 이후 노선을 달리한 김주희가 탈퇴하여 1915년 동학교를 세우게 된다. 경천교는 1912년까지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김홍철, 「경천교」, 『한국신종교대사전』,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6), 43.

72) 『증산청림현기경(增刪靑林玄機經)』은 청림교 계통 교단에서의 필사본 상중하 세 권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하권에서 기존 『용담유사』의 가사 두 편(「용담가(龍潭歌)」, 「도수가(道修歌)」)과 신증(新增)이라 하여 청림교에서 새로 만들어낸 가사 10편을 싣고 있다. 앞으로 분석을 요하는 자료이다.

73) 이미륵, 『압록강은 흐른다(상)』 (서울: 다림, 2000-2003), 180. 다음의 책에서 재인용. 황태연,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파주: 청계, 2018), 176.

권위로 독립적 민족국가 국민국가(민국) 수립을 위한 정치·사회혁명을 관철시키려는 '우리임금지존주의'다"[74]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현실에서 분출한 신존왕주의가 아래의 구절들에서 엿보인다.

① 明聖하신 우리皇帝 天運을 順케하사
辛酉戊亥 三災運을 順天順理 다보내고
壬子癸丑 甲寅年에 天下萬國 通一일세 (「天運歌」)

② 한울님께 비는뜻은 다른所懷 바이없고 晝宵間 비는뜻이
明聖하신 우리皇帝 永世無窮 하온後에
天下萬國 同胞兄弟 一心으로 開化하야 …
堯舜같은 우리皇帝 日月같이 밝은聖德 天下에 布揚하면 微賤한 이목숨을
만국형제 조회중에 아끼잖고 바치리라 한울님이 아신罪를 이世上에 못免하면
九原에 돌아가도 天地神明之大德이며 父母祖上 靈魂을 對할수가 없아오니
西洋各國 착한兄弟 밝은德을 널리펴어 明聖하신 우리皇帝 걱정근심 풀어주소
(「廣告章」)

③ 오백여년 우리황제 일이났네 일이났네 李氏宅에 일이났네
三災運數 지내거든 四海兄弟 開化하야
五百餘年 우리皇帝 陸地같이 回復하세 (「숫자가 三節」)

④ 東天의 紫微星이 上元甲戌 春二月에
一八之數 應하여서 初八日에 탄강하사
隆熙皇帝 復位하니 萬古없는 이運數를 無道人生 어찌알고
大慈大悲 우리聖上 堯舜復生 하신줄을 道人외에 뉘알소냐
嵬嵬湯湯 넓은德이 八域臣民 父母되야
九重宮闕 높은곳에 天顔玉體 恍惚하다
漢水江邊 童子들아 聖君恩德 너만아나
春坮日月 滿座中에 너도百姓 나도百姓
名色없는 이 百姓이 노래한번 불러보세 (「商山樵夫守本歌」)

---

74) 황태연,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395. 인용.

①에서는 명성(明聖)한 황제[75]가 천운(天運)에 따라 삼재(三災)의 어려운 때[76]를 보낸 뒤 임자년(1912년), 계축년(1913년), 갑인년(1914년)에 천하만국을 하나로 통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적 언급을 하고 있다.

②에서는 동학의 한울님에게 비는 내용이 황제의 영세무궁과 동포의 개화라는 점을 말하며, "堯舜같은 우리皇帝 日月같이 밝은聖德 天下에 布揚하면 微賤한 이목숨을 만국형제 조회중에 아끼잖고 바치리라"라 하여 강렬한 신존왕주의를 보이고 있다.

③에서는 "이씨댁에 일이났네"라 하여 곧 조선에 위기가 닥쳐왔음을 보이고, 동포들이 개화하여 황제를 '육지 같이' 굳건하게 회복시킬 것을 다짐한다.

④에서는 갑술년(1874년) 2월 8일 탄강한 순종황제가 현재에는 물러나 있으나 다시금 복위할 운수임을 말한다. 순종의 넓은 덕과 옥체를 찬양하며 성군의 은덕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본장의 내용을 볼 때『만세선화』전반에서 언급되는 황제는 고종이 아닌 순종임을 알 수 있다.

신존왕주의는 황태연도 지적했다시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도 나타난다.[77] 이러한 신존왕주의와 동학과의 관계를 구체적인 동학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무척 흥미로운 부분이며『만세선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 하겠다.

---

75) 순종을 말한다.

76) 辛酉戌亥는 申酉戌亥의 오기로 보이며, 무신년(1908년), 기유년(1909년), 경술년(1910년), 신해년(1911년), 곧 1908년부터 1911년까지의 시기이다.

77) 황태연은 동학농민혁명에서 드러나는 신존왕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8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동학의 교조신원운동은 임금에게 상소해 임금과 직접 교감하면 '우리 임금님'이 교조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 속에서 반복된 일군만민 신화의 실천이었다. 또한 1894년 2월 고부민란으로부터 시작되어 삼남 전역의 혁명내전으로 발전한 제1차 동학농민전쟁도 이런 향촌의 수령·이향만이 아니라 중앙의 권귀들까지 척결하고 신종왕주의적 일군만민체제를 수립하려는 근본목표를 지향했다." 황태연,『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469. 인용.

Ⅵ. 맺음말

수운교는 동학교단으로 많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지만 가사의 관점에서 볼 때 출륭자의 장편가사 『용운가』가 있을 뿐 아니라 교단 내에 비결가사인 『채지가』 판본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교단 내에서 방호 박종각(朴鍾珏)이 강필로 받은 「무궁화」 예언가사도 존재한다.

수운교에서 1975년 발간한 『만세선화』는 이 가운데 가장 베일에 싸여 있는 자료였으며, 그 중요성도 크다. 이중 몇 편은 해제가 달린 바 있지만, 그 종교성을 간과한 채 동학가사라는 인식 없이 다뤄졌기에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본고는 『만세선화』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필사본 역시 찾아서 비교하였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저작주체 및 서지사항과 내용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세선화』는 수운교 성립 이전인 1910년대 초반 정수승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운림교를 세웠을 당시에는 경전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정수승이 수운교의 신도였었다는 점과 『만세선화』가 특정 종교성을 띠지 않았다는 점을 수운교의 『만세선화』 수용 및 발간의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만세선화』의 기존 학계의 인식에 대해 동학가사의 특징을 인식하지 못하여 생긴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기존 가사 장르의 전통을 어떻게 잇고 있는지, 동학가사로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만세선화』의 저작자 정수승 및 그의 교단 운림교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수운교를 비롯하여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세선화』는 1910년 국권 피탈 후 혼란스러운 식민지 상황에서 당대의 시대상을 걱정하며 종교적 해결책을 모색한 사회성 짙은 동학가사이다. 신종교가사로서는 이른 시기인 1910년대 초반에 특정 저자가 41편이란 많은 편수의 가사를 체계 있게 이루어냈다는 점은 보기 드문 사례이며, 종교가사뿐 아니라 가사 일반에 있어서도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수운교를 비롯하여 각 교단의 가사들은 산적해 있으나, 한국 신종교 가사 연구는 아직 자료의 발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도 현장 답사를 통한 자료 획득 및 분석에 더 힘써야 할 때이다.

주제어: 신종교가사, 동학가사, 동학, 수운교,『만세선화』, 정수승(鄭壽承), 운림교(雲林敎)

원고접수일: 2023년 06월 14일
심사완료일: 2023년 06월 2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6월 29일

참고문헌

「도덕기라」

『만세선화』

『용담유사』

이찬구 주해. 『채지가 9편』. 서울: 나무의 꿈, 2010.

김승우. 「영조(英祖)의 국문시가 향유와 어제 「권선지로행(勸善指路行)」에 대한 연구」. 『한국시가연구』 38 (2015): 251-284.

박노춘. 「도덕가(道德歌) 「남명(南溟) 조식(曹植) 작(作)?」」. 『국어국문학』 20 (1959): 202-203.

_____. 「이른바 『道德歌』의 異稱·作者에 關한 小考」. 『文湖』 3 (1964): 15-17.

박병훈. 「동학 강필 연구」. 『종교연구』 80 (2020): 235-252.

_____. 「한국 근대 신종교가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1.

_____. 「한국 비결가사 연구: 비결에서 비결가사로의 전환과 전개」. 『종교와 문화』 41 (2021): 1-33.

박연호. 「퇴계가사의 퇴계소작 여부 재검토」. 『우리어문연구』 36 (2010): 7-32.

박인규. 「동학의 입도의례 연구」. 『종교연구』 82 (2022): 63-89.

서원섭. 「퇴계의 금보가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3 (1975): 59-72.

_____. 「퇴계의 상저가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8 (1979): 25-50.

_____. 「퇴계의 효우가 연구」. 『퇴계학과 유교문화』 9 (1980): 21-53.

수운교 교리연구원. 『수운교진리』. 대전: 수운교, 1999.

안미애. 「동학 가사집 『기도히가(開道解歌)』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표기와 음운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36 (2015): 45-76.

이동영. 「「환산별곡」 작자에 대하여-퇴계의 소작이 아니다」. 『가사문학연구』, 386-394. 부산: 부산대출판부, 1987.

_____. 「周世鵬과 道德歌」. 『국어국문학』 84 (1980): 268-271.

이원섭. 「동학 편력자 권병덕의 종교 생활과 행적」. 『종교학연구』 40 (2022): 91-115.

이찬구. 「수운교 경전성립과정 고찰」. 『신종교연구』 17 (2007): 53-96.

조규익.「周世鵬의 국문노래 연구」.『한어문교육』1 (1993): 153-171.

한승훈.「역사적 최제우와 청림교의 비밀결사들: 한국 자생종교에서의 종교와 저항 폭력」.『한국종교』51 (2022): 56-101.

황태연.『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파주: 청계, 2018.

김홍철.『한국신종교대사전』.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6.

KRPIA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DB (https://www.krpia.co.kr)

한국가사문학 DB (http://www.gasa.go.kr)

Abstract

Study on *Manse seonhwa* (萬世仙話)

Park, Byoung Hoon (Seoul National Univ.)

In this paper, I analyze *Manse seonhwa* (萬世仙話), a newly discovered anthology of 41 pieces of gasa (prose-poetry), which was published in 1975 by Suungyo (水雲敎). I compared it with the manuscript, introducing the author, bibliography, and contents. *Manse seonhwa* was written by Jeong Su-seung (鄭壽承) in the early 1910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Suungyo, and it was recognized as a scripture when Ullimgyo (雲林敎) was established. Furthermore, the fact that Jeong Su-seung was a member of Suungyo and that *Manse seonhwa* did not have a specific religious sentiment was cited as the reasons for Suungyo's acceptance and publication of *Manse seonhwa*. The paper also highlights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failure to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gasa in Eastern Learning regarding the existing academic perception of *Manse seonhwa.* It examines how *Manse seonhwa* connects with the traditions of the existing gasa genre and identifies it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Both Jeong Su-seung, the author of *Manse seonhwa*, and Ullimgyo have now faded into history, with no one, including Suungyo, remembering them. However, *Manse seonhwa* represents a social gasa of Eastern Learning that sought religious solutions while grappling with the turbulent colonial situation following the loss of national sovereignty in 1910. The paper emphasizes that it is a rare case for a specific author to have accomplished 41 pieces of gasa in the early 1910s, making it evident that *Manse seonhwa* holds value not only as a religious gasa but also as a significant document within the realm of gasa as a whole.

Keywords: Gasa of new religions, gasa of Eastern Learning, Eastern Learning, Suungyo (水雲敎), *Manse seonhwa*, Jeong Su-seung (鄭壽承), Ullimgyo (雲林敎)